

한우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1
09

기획특집

FTA 체결현황 및 한우산업 대응전략

파워인터뷰

유선호 국회의원

현장르포

제12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이모저모

고마운 이와 나누고픈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키운
귀하고 값진 우리한우



C·O·N·T·E·N·T·S

기획특집 02-05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파워인터뷰 06

유선호 국회의원

이슈 07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산업 藥일까 毒일까?

현장르포 08

제12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이모저모

Information 09

홍보대사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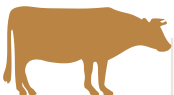
포커스 10-11

KREI 축산관측

Information 12-14

한우자조금 이렇게 씁니다

애독자 코너 & 인증점 소개 15



명절 인기상품은 역시 ‘한우선물세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보냈다.

구제역으로 설 명절을 한탄속에 보냈다면 이번 추석을 전후해선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명절 선물로 한우선물 세트의 인기가 높았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추석에다 잦은 폭우와 어획량 감소로 인해 전통 명절 인기상품이던 과일이나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자 인기가 시들해 지면서 대신 올 추석에는 한우선물세트가 인기상품 1순위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예전이면 ‘한우는 비싸다’며 구입을 꺼렸던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 같은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에는 축산업계의 눈물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한우를 아끼고 소비하려는 마음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획특집 I 한우자조금 연구용역 결과보고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최근 정부는 주요 경제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EU FTA는 지난 7월부터 발효됐으며 2012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일본, 중국과의 FTA도 속도를 내고 있어 주요국가와의 FTA체결은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우산업은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으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고공행진을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과 사육마릿수 과잉의 영향으로 가격하락으로 인한 산업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거세지는 개방의 바람 속에 한우산업은 어디로 가야할까?

이에 조석진 영남대 교수 연구팀이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우자조금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8월 18일 발표한 이 결과를 토대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 조석진 영남대 교수.



주요국가 FTA체결 '시간문제'

한우산업 대응방안 마련 절실



국 육류 협회 PATRICK BOYLE 회장은 지난 1월 25일 미하원 증언발언 시 “한국,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는 낮은 나뭇가지에 달린 과일처럼 미국의 육류산업이 힘 안들이고 비교적 손쉽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바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이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의 육류산업에 있어서 1994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최대 쾌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각국과의 FTA 파급효과

 [미국] 미국내 광우병이 발생했던 '03년 이후 급감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07년 수입재개 후 지속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3월 수입량은 59,800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9배가 증가한 점을 감안한다면 FTA발효 후에는 관세마저 점차 철폐되어 수입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쇠고기 소비가 점차 고급화 및 가정소비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미국산 냉장육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육류협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 후에는 '09년 2억 16백만달러를 기록한 쇠고기 수입액이 6배 이상인 최대 13억 8천만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미

 [호주]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호주의 수출동향을 보면 냉동육은 연간 2.3% 성장에 그쳤지만 냉장육은 42.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가정내 소비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중 한우와 경쟁하고 있는 것은 호주산 화우로, 앵거스와 화우 교잡종인 F1, F2의 국내 가격은 최고급 등심이 100g당 5,000원대로 일반 정육점의 한우고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FTA타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호주산 화우고기의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한우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주는 한국의 우육수출 중 목초비육은 27천톤, 곡물비육은 88천톤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기획특집 I 한우자조금 연구용역 결과보고



FTA가 확산될 시 한우의 주 경쟁상대는 일본의 화우를 비롯한 고급육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의 화우와 앵거스의 F1을 비롯한 각국의 고급육이 국내 시장 진입시 한우 산업의 생산감소액은 751~4381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15천톤과 19천톤이 감소했다. 곡물비육의 수입량이 감소한 이유는 2007년 미국산 우육의 수입재개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시장에서 미국산과 호주산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며, 특히 곡물비육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호주의 화우산업은 중국을 포함한 타국에 화우육 외에 화우정액을 공급함으로써 금후 중국의 화우산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한·중 FTA 이후 한우산업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U] EU의 쇠고기 무역동향으로 본다면 FTA가 발효돼도 직접적인 쇠고기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준으로 EU 27개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800만톤 규모로써 37만톤 가량을 더 수입해 자국 내에서 소비하므로 수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가 월등히 높으며, 품질도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곡물비육을 통한 육질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점진적인 관세철폐로 EU산 돈육수입이 늘어날 경우 대체효과를 통해 한우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일본은 최근 원전사고 이후 화우의 방사능오염문제로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화우고기의 수입가능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거세화우 kg당 한국도착가격은 1++A가 29,489원,

1+A가 24,534원, 1A가 21,613원으로 거세 한우보다 가격이 높아 FTA가 타결되더라도 화우고기의 수입가능성은 높지 않다.(2011. 02 도쿄도매시장 지육가격 기준)

이는 최근 일본 엔화의 환율이 100엔당 1,300원 전후로 매우 높으며 한우 사육마릿수의 증가로 한우고기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중국] 지금은 중국내 구제역발생으로 축산물 무역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향후 양국간 검역문제를 협의해 합의한다면 수입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특히 중국의 황우와 일본 화우를 이용해 생산된 고급육의 수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같은 가능성을 위해 중국은 최근 일본과 한국의 등급판정제도를 참고해 우육등급판정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중국내의 고급육 수요에 부응하는 동시에 수입육과의 경쟁을 준비하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 한국의 시장에 대한 수출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파급효과] 조석진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쇠고기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FTA가 모두 타결돼 관세가 철폐된다면 국내 한우산업의 생산감소액이 751억원에서 4,38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수입쇠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이미 50% 수준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와의 FTA협상 타결 후에는 쇠고기 수입증가량에 따라 생산감소액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로 쇠고기 수입량이 5% 증가 시 751억원 수준이지만 30% 증가 시 한우산업의 생산액이 최대 4,3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EU로부터의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된다. ☺

◆ FTA로 인한 한우산업의 생산감소액 추정결과

수입증가 (%)	수입감소 예상액 (억원)
1	151
5	751
10	1,494
15	2,229
20	2,955
30	4,381

FTA시대의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은?



다. 또한 사료작물 재배 등 사료비를 절감해야 하며 일관사육체계를 통한 가축비 절감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

사료안정기금 확보와 소득안전 위한 제도장치 필요

최근 한우사육마릿수의 증가로 한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소매점 및 음식점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른바 쇠고기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문제다. 이 현상은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인 다단계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쇠고기가격의 하방경직성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육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용 감소와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화우시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가격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경우 번식 및 비육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체제에서 한우산업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 소득안전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탄력적인 비육농가대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료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쌀과 사료작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및 사료용 쌀 품종의 육종개발이 필요하며 유전자원 보존 및 근친교배 방지 장치가 요구된다. ㉔

품질경쟁력 제고

암소개량으로 육질을 차별화하라

한국의 육질 1등급 이상 비율은 2010년 63.1%수준으로 일본의 66.2%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육질1등급 이상 생산비율을 화우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암소개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출하한 후 등급판정 결과를 다시 번식농가로 통보하는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번식우의 능력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육질등급에 따라 번식우의 순위를 정함으로써 육질이 가장 낮은 유전형질을 지닌 번식우부터 점진적으로 도태시키고 아울러 계획교배를 실시해 송아지 생산부터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순수익을 높여라

수입육의 강점이 저렴한 가격인 만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번식농가의 순수익이 가장 높은 사육규모는 10~29마리로 사료자급이 가능한 수준에서 규모화를 이뤄 생산비를 절감해야 한다. 또한 송아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축협 및 생산자 단체에 의한 육성우 목장 및 분만우 센터 등을 운영해 송아지생산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육농가의 순수익이 가장 높은 사육규모는 50~99마리 계층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육 규모를 적정화시켜야 한





파워인터뷰 | 유선호 국회의원

‘사료안정기금’ 입법발의 긍정적 기금조성 기대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앞으로 곡물가격이 10년간 최소한 20%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사료안정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사료안정기금법안을 입법발의한 유선호 의원으로부터 배경과 운영방안을 들어보았다.

유선호 국회의원(민주당, 장흥·강진·영암군) ▶



Q 사료안정기금 관련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한우산업은 FTA와 구제역 파동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사료가격 인상까지 더해져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우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사료가격은 대폭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결국 한우농가는 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해 사료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자 한다.

Q 정부는 사료안정기금 도입에 대해 미온적이다. 국회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사실 몇 년전 사료가격 급등 시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 한우협회를 비롯해 농가도 필요성을 요구하며 많은 호응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예

산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기금의 재원이 축산농가나 사료업자의 납입금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8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보고되었고,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설치하려는 개정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Q 사료안정기금 도입 방안과 기금 조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다. 1975~84년까지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운용한 결과 사료가격 안정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담금 납입의무자를 사료 수입업자로 한정해 부담금 과다 등 부작용이 많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납입의무자를 사료영업자, 축산농가, 국가 등으로 다양화해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기금조성 시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Q 정책당국과 축산농가에 전할 사항은?

일본은 수입원료가격 및 배합사료 가격의 상승분을 보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가격안정기금 발동요건과 보전액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방화 시대에 축산농가 소득안정화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농가가 한발씩 양보해 반드시 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이슈 I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산업 藥일까 毒일까?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암소도축 일시급증 방지책

시장 자율적 조절기능으로 가격회복해야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지금의 한우 사육마릿수는 290만마리로 2003년보다 2.5배나 증가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한 반면 한우가격은 장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농가들은 한우 사육마릿수의 증가로 가격폭락을 겪었던 1990년 후반의 사태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송아지가격이 하락해도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 기준가격을 인하하거나 암소의 도축을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한우산업의 안정에 藥이 될까? 毒이 될까?

암소 도축마릿수 단기간에 큰 폭 변동

한우 도축마릿수 변동은 숫소보다 암소의 도축률에 의해 결정된다. 비거세 숫소는 24개월 내외, 거세우는 30개월 내외에서 도축되므로 적어도 30개월 후까지의 숫소 총 도축마릿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암소 도축마릿수는 번식의향에 따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다. 어떤 원인으로 암소 도축률이 높아지면 쇠고기 시장 공급량이 일시에 늘어나 한우가격이 떨어지고, 이것이 다시 번식의향을 냉각시켜 암소도축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에 파동이 일어난 원인이었다. 물론 암소 도축률이 너무 낮으면 암소 사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한우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발동기준가격 인하는 번식농가 불안감만 조성

가령, 가격 상승기에는 암소도축 장려 정책이 암소도축 증가, 쇠고기 가격 하락, 송아지가격 하락, 비육농가 가축비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암소도축이 서서히 증가하고 한우가격 하락이 진행 중인 지금의 한우시장에 암소도축 장려책이 시행될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교란시켜 파동을 촉발시키는 역기능을 할 우려가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암소 사육마릿수를 조기에 감축시키기 위해 송아

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가격 165만원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번식농가는 불안감이 팽배해져 암소를 일시에 도축해 파동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번식농가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에 의해 최대 30만 원까지 보전받으므로 송아지 가격이 135만원 이상인 농가의 경우 165만원이 보장된다. 따라서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해도 번식농가의 수지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암소도축이 일시에 급증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암소는 수취가격 165만원 수준에서 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 경쟁력이 없는 농가는 탈락하고 저능력 노산 번식우의 도태가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편, 비육농가의 경우에는 한우가격이 하락하면 판매수입은 줄어들지만 송아지 입식비용이 낮아져 경영비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우가격 하락이 비육농가의 경영여건을 반드시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입식의향이 급격히 냉각될 필요가 없고, 과도하게 냉각되지 않게 유도하여야 한다.

요컨대 한우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겠지만 번식농가가 과잉반응을 자제한다면 파동 없이, 그리고 대부분 한우농가의 경영을 현재보다 크게 악화시키는 일 없이 가격은 다시 상승기로 접어든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㉞



현장르포 | 제10회 한우인의 날·제12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한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충남 홍성에서 제12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

암소 도태 정부 장려금 지원 촉구

“한우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주제로 지난 2일, 제10회 한우인의 날 및 제12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이 충남 홍성 홍주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했다. 1만 여명의 한우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우인 스스로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호경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위기에 빠진 한우산업은 향후 전망 역시 밝지 못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한우농가들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수급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우산업은 농림수산 생산액 가운데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이지만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크다. 가격회복을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설 것임을 약속하며, 한우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회원과 지부에 대한 시상식(시상자는 표 참조)과 한우산업 안정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및 한우농가 어울마당이 이어졌으며 부대행사로 한우 기자재 전시회 및 한우고기 판매 등이 진행됐다.

한편 한우인의 날 전야제 행사로 1만여명의 홍성군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TOP10 가요쇼’ 공개방송이 열려 한우인의 날을 축하하고, 한우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㉞



시상명	지역명	성명	시상명	지역명	성명
장관상	강원 인제군	김석봉	우수회원	경기 양평군	서정운
	충남 예산군	최영목		강원 춘천시	이중호
	경북 영주시	한한식		충북 청주시	박언구
	경남 김해시	하태문		충남 태안군	이남원
우수지부	경기 연천군지부			전북 정읍시	홍순구
	강원 화천군지부			전남 나주시	박도진
	충북 보은군지부			경북 구미시	이인철
	충남 공주시지부			경북 의성군	장동수
	전북 장수군지부			경남 거창군	이현태
	전남 담양군지부			울산시지회	이상철
	경북 울진군지부			제주도지회	임창우
	경남 의령군지부				

한우의 우수성 널리 알릴게요~ 탤런트 최수종 · 하희라 부부 한우대사 위촉식

탤런트 최수종 · 하희라 부부가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에 앞장선다.

한우자조금은 최수종 · 하희라 부부를 한우 홍보대사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남호경 위원장은 한우 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하며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최수종 · 하희라 부부는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대해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알리는



대표주자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이 한우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수종 · 하희라 부부는 최근 TV 광고 촬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에 나섰다. 지난 24일 첫 방송을 탄 TV 광고는 '한우백선(한우가 우리에게 주는 100가지 선물)'을 콘셉트로 '추석편' '수확생편' '회식편'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PPL

한우와 함께 즐거운 한가위 TV프로그램 나들이

한우자조금은 한가위를 맞아 다양하게 구성된 TV프로그램을 협찬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한우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



8. 22 KBS2 굿모닝 대한민국



9. 8 SBS 좋은 아침



9. 10 KBS2 체험 삶의 현장



9. 10 MBC 찾아라 맛있는 TV



9. 11 KBS2 출발드림팀



9. 11 SBS 런닝맨



9. 12 MBC 나는 가짜다



9. 12 KBS2 최고의 며느리



9. 12 SBS 도전 1000곡



9. 12 MBC 나는 트로트 가수다

9~11월 한우 자육 도매가격 13,000~14,500원 전망

* 한육우 사육 마리수 각각 306만 마리, 299만 마리

- 송아지 생산 증가로 6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5.7% 증가한 305만마리로 최대치 기록
- 9월과 12월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각각 3.6%, 2.5% 증가한 306만마리, 299만마리 전망

* 도축 마릿수와 수입량 증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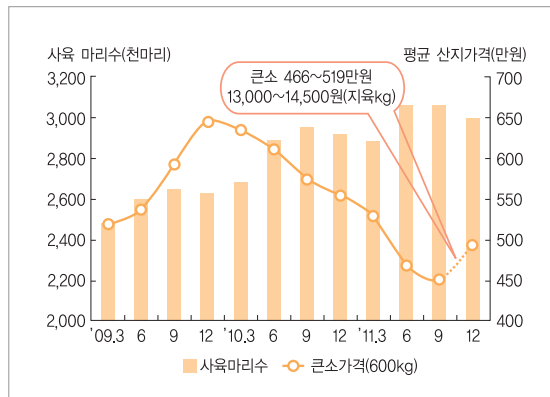
9~11월 쇠고기 공급량 전년보다 증가

- 출하 지연물량이 많아 9~11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19만 5천 마리)보다 17.5% 증가한 22만8천마리로 전망, 이러한 도축 마릿수 증가 추세는 2012년 초까지 이어질 듯
- 수입육 재고가 많아 9~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5만 4천 톤)보다 10.9% 증가하는데 그친 6만톤으로 예상

* 쇠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 가격은 전년보다 약세 예상

- 도축 마릿수 및 수입량 증가로 9~11월 자육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6~16% 하락한 13,000~14,500원(466~519만원, 1등급 생체 600kg 기준)으로 예상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가격 전망



● 한육우 사육동향 및 전망

9월과 12월 사육 마리수 전년보다 각각 4%,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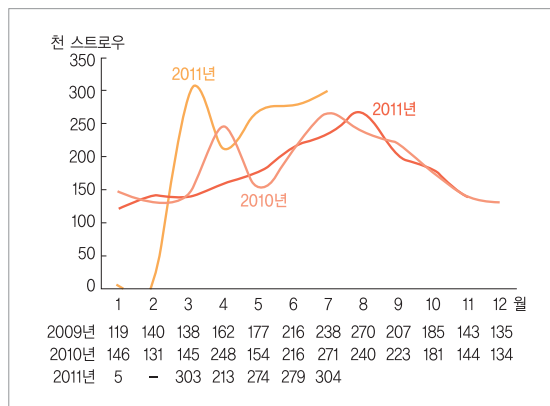
* 송아지 생산 잠재력 높으나 11~12월 일시적 공백

- 한우 정액 판매량을 이용한 9~11월 송아지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2.5% 높게 나타났는데 구제역으로 올해 1, 2월 인공 수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11~12월에는 송아지 공급 공백기가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3월 이후 정액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내년 초에 태어날 송아지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우 전업농가 송아지 입식 기피

- 송아지 입식의향 조사결과, 송아지 입식을 계획보다 증가시키겠다는 농가의 비율이 전 분기(3.5%)보다 낮은 2.5%로 조사되었으며, 입식을 감소하겠다는 의견도 증가했고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장기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 한우 정액 판매량 추이



전업농가의 송아지 입식의향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 299만 마리 전망

- 9~11월에는 송아지 생산 증가분보다 도축 마릿수 증가분이 커 한육우 사육 마릿수 증가 폭은 6월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9월과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각각 3.6%, 2.5% 증가한 306만마리, 299만마리로 전망된다.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전망

(단위 : 천 마리)

기 간	송아지생산	도축	한육우 사육 마리수
10년 12월~11년 2월	194(196)	178(197)	3월 : 2,881(2,707)
11년 3~5월	329(319)	171(145)	6월 : 3,053(2,889)
6~8월	225(212)	224(158)	9월 : 3,057(2,951)
9~11월	159(155)	228(195)	12월 : 2,994(2,915)

※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수치임.

※ 자료 : 통계청(2011년 9월과 12월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한우 가격동향 및 전망



1등급 도매가격 전년보다 6~16%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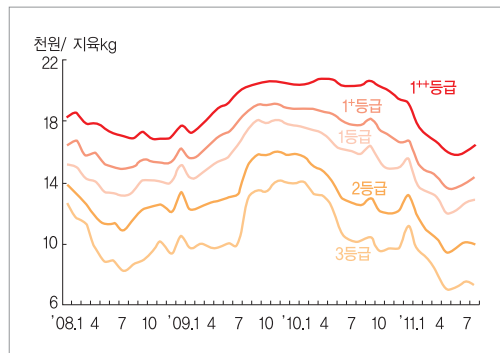
◆ 소값 안정화 방안(농식품부 발표)

생산 단계	소비 단계
• 소 사육농가 대상 암소 우선 도태 유도 • 농가가 소를 적정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사육두수·가격 전망 등 정보제공 강화	• TV 등 광고매체를 통한 소비 홍보를 추진 • 식육점·음식점의 소비자 가격 인하 유도 • 한우고기 할인판매 지속 추진 • 식육점·음식점 원산지 단속 강화 • 급식물량 확대

★ 9~11월 가격 13,000~14,500원

- 한우 고기 공급량과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9~11월 큰 소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6~16% 하락했지만 연말수요 증가로 6~8월 가격보다 다소 오른 지육 kg당 13,000~14,500원(466~519만원)으로 전망되고 수송아지 가격은 160~180만원으로 전망된다.

◆ 한우 등급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동향



● 쇠고기 수급동향 및 전망



도축 마리수는 18%, 쇠고기 수입량은 11% 증가

★ 도축 마릿수 17.5% 증가 전망

- 출하지연 물량이 많아 9~11월 도축 마릿수는 전년(19만4천마리)보다 17.5% 증가한 22만8천마리로 전망된다.

★ 쇠고기 수입량 10.9% 증가 전망

- 수입육 재고 증가로 2011년 9~11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5만4천톤)대비 10.9% 증가하는데 그친 6만톤으로 예상된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추석선물은 역시 한우!!

추석맛이 기업체 및 직거래장터 판매 활발



- ① SK소비행사.
- ② 삼성동직거래장터.
- ③ 서초구119자선한가위장터.

한우자조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며 한우소비에 열기를 더했다. 한우자조금은 농식품부와 함께 명절 한우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함과 동시에 100대 기업을 선정, 한우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자 해당 기업체에 한우세트 예약판매 관련 협조공문과 농식품부 장관명의로의 친서를 포함한 공문을 전달하며 서민 물가안정 및 어려운 한우농가에 힘을 보태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과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기업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SK텔레콤본사와 남산그린타워에서 시식 및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30일에는 SK텔레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우 불고기를 중식으로 지원했으며 등심 시식회를 진행하며 3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판매를 진행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삼성커뮤니티프라자에서 열린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한우판매 및 한우고기 증정식을 가지며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주문 판매 접수를 받았다.

이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는 '서초구 119 자선 한가위장터'를 서초구청 광장에서 진행했다. 지난 7월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위로를 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한우자조금은 한우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하며 한우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했다. ☺



한우사랑 노란우체통 경품이벤트 황금소의 주인공은?



한우사랑 노란우체통 경품이벤트에서 울산의 장지호 씨와 충북 청주의 이수윤 씨가 황금소의 주인공이 됐다.

한우자조금은 소 값 안정 및 여름 비수기 한우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한달간 총 1억원의 경품행사를 실시한 결과 1등 황금소 50頭に 장지호 씨와 이수윤 씨, 2등 황금 송아지 10頭に 대전 동구의 손명호 씨를 비롯한 3명, 3등 32인치 LCD TV에 서울 동대문구의 김정선 씨를 비롯한 8명 등이 당첨됐다.

이번 경품이벤트는 정육점을 비롯한 식육판매점에서 한우고기를 2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응모권을 지급했으며 총 24만 8000여개의 응모권이 접수, 517명을 추첨해 상품을 지급했다.

이번 행사의 1등 당첨자인 울산 중구의 장지호 씨는 “최근 한우가 격이 저렴해 종종 구매했는데 이처럼 상품까지 타게 되서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맛있는 한우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응모권 한 장당 2만원 씩만 잡아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 총 50억여원 치의 한우고기가 판매된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소비촉진 행사로 소 값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바로 퀴즈왕!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 개최



대 상 인천 백학초교 원지수 양
최우수상 서울 개봉초교 박채은 양 · 동탄 예당초교 윤동호 군



한우자조금이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관하는 '제2회 우리 축산물 퀴즈왕 선발대회'가 지난 4일 부천 한국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제와 맛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한우 등 우리 축산물에 대해 바로 알리고 애호의식을 고취하고자 치러진 이번 행사는 개그맨 정종철 씨가 사회를 진행해, 퀴즈왕 선발대회 외에도 어린이 요리왕 선발대회, 인형극, 파워블로그 요리레시피, 룰렛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부대행사 중 부모와 어린이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요리경연을 펼치는 '어린이 요리왕 선발대회'는 '부모와 함께 만드는 한우요

리'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이 개성 있고 맛있는 한우 요리들을 선보인 가운데, 어린이 요리왕에는 엄마와 함께 '섭산적'을 요리한 인천 영화초등학교 황건일군이 수상했다. 이밖에 불고기 수제비, 불고기 떡볶이, 쇠고기쌈, 불고기햄버거, 불고기 수제비 등 다양한 한우요리들이 출품되어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모와 어린이가 한 팀을 이뤄 축산물등급제, 부위별 용도 등 우리 축산물에 대한 각종 상식과 정보에 대해서 예선을 통과한 총 80팀이 본선 대회에 참가해 퀴즈를 풀었다. 대상은 인천 백학초등학교 원지수 양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아이패드2와 한우고기 세트가 주어졌다.



 Information |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한우
먹는날



8. 19 한우먹는날(경기 가평)



8. 26 한우먹는날(전남)



8. 26 한우먹는날(충남)

한우알림
순회공연



8. 5~8 한우알림순회공연-일산호수공원



8. 12~14 한우알림순회공연-양재천수영장



8. 22 한우알림순회공연-COEX

시군
홍보행사



7. 31 정남진물축제(전남 장흥)



8. 6~7 견우직녀축제(충남)



8. 6~7 복숭아축제(충남 연기)



한우소식 이모저모

축산물품질평가원 새로운 소 등급기준 적용

10월 1일부터 소도체 육량등급판정 기준 중 C등급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소도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살코기 생산비율을 향상시켜 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10월 1일부터 육량 C등급의 범위가 상향조정된 새로운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고급육 생산 중심에서 살코기 생산비율도 함께 높이는 사양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함과 아울러 장기비육에 따른 불필요한 지방 생산을 억제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10월 1일부터 소도체 육량등급판정 기준 중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현행 62,000미만에서 62,70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 한 마리에서 평균적으로 생산되는 불가식 지방량 중 약 5.3kg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를 62,000에서 62,700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마리당 불가식 지방이 약2.9kg정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비육기간을 고려하여 2013년 1월부터는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 범위를 62,700에서 63,300미만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가식 지방량은 약2.4kg정도가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량 A등급의 하한선에 대해 2013년 1월부터 67.5에서 67.2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 고취와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했다.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 범위의 상향 조정은 고기 생산비율을 높이는 한편, A등급의 하한 범위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육량등급간 출현율을 30(A) : 40(B) : 30(C) 수준으로 균등하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소도체 등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을 통한 과학적 검증과 공청회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요령을 개정하여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2011 제5회 한우문화공모전
한우문화 창조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2011.8.8~9.30

참가대상: 대한민국 전국민
상금내용: 총상금 30,000,000원 / 수상자 11명
공모분야: 시각부문: 사진, 광고 디자인
미디어 부문: UCC, CM송
수기공모 부문: 한우종사자가족 / 일반주부
참가신청 및 접수 마감: 2011년 8월 11일(월) ~ 9월 30일(금)
공모일정: 참가신청 및 접수 마감: 2011년 8월 11일(월) ~ 9월 30일(금)
홈페이지: www.designhanwoo.co.kr

애독자 코너



제10회 한우인의 날 및 제12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일 충남 홍성 홍주체육관에서 1만여명의 농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 날 행사는 한우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회원과 지부에 대한 시상식과 한우산업 안정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 등이 펼쳐졌고 한우 기자재 전시회 및 특산물 판매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올해 한우인의 날 행사는 한우농가 스스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000 000 000 00'를 주제로 정해 개최되었습니다. 올 해 행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우자조금 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국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8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이희득(경북 경산시), 박갑표(충남 보령시), 김정숙(충남 부여군), 김순오(전북 군산시), 손현경(서울 송파구), 김재규(전남 고흥군)

인증점 소개

칠읍산 개군한우

전화 : 031-772-8142
주소 :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 450-1
메뉴 : 특수모듬(180g)
35,000원, 갈비탕 7,000원



한우는 수질과 토질이 좋으며 사육 환경이 풍부한 사육사에 의해 길러질 때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고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전문조리사의 손맛에서 품격있는 맛이 탄생한다. 칠읍산 개군한우는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곳으로 이만재 대표는 칠읍산 자락에서 어려서부터 선대에게 물려받은 한우를 줄곧 길러왔다. 1+등급 이상의 품질 좋은 한우만 취급하기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또한 일반찬은 사골내음이 물씬거리며 갯잎에 고기를 싸먹을 때 목젖을 적시는 산수유꽃향은 그야말로 진미다.

서부터 선대에게 물려받은 한우를 줄곧 길러왔다. 1+등급 이상의 품질 좋은 한우만 취급하기에 문전성시를 이룬다. 또한 일반찬은 사골내음이 물씬거리며 갯잎에 고기를 싸먹을 때 목젖을 적시는 산수유꽃향은 그야말로 진미다.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8권 제21호 통권 제71호 발행일 2011년 9월 2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아회관 3층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발행처 전국한우협회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디자인 HINCOM Tel: 02-585-0091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한우값 회복은 소비촉진도 중요하지만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한우 사육두수를 줄이는 길만이 한우값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송아지를 생산하고 암소 도축이 줄면
한우값은 2015년 이후에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암소도축이 크게 줄고 인공수정이 늘고 있어 한우두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한우농가가 먼저 앞장 섭시다.
 - 암소도태에 솔선수범 합시다.
 - 인공수정을 가급적 억제 합시다.
- 한우자조금 · 한우협회 · 농협 · 농림수산식품부는 범국가적 소비촉진에 매진하겠습니다.
 - 농협판매장, 유통업체, 정육점, 음식점이 생산자 단체의 할인 행사로 소비층을 넓혀 한우두수를 줄이겠습니다.
 - 군납 · 학교 급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매주 금요일 '한우고기 먹는 날'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기업체의 집단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